

돌아온 '키맨' 김도영, "승리의 매듭을 풀어라"



올러



KIA 주간 전망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숨가쁜 원정 6연전에 돌입한다. 이번 주 롯데와 NC를 상대로 중위권 순위 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4일 현재, KIA는 48승 47패 4무로 리그 5위. 선두권과는 다소 격차가 벌어졌다. 1위 한화·2위 LG와는 10경기, 3위 롯데와도 6경기 차다. 반면, 중위권은 초점전이다. 4위 SSG부터 공동 6위 kt·NC까지는 단 15경기 차. KIA는 쫓고 쫓기는 이중 싸움 한가운데에 있다. 지난주에는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를 거뒀다. 주말 2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됐다. 숨을 고른 것도 잠시, 곧바로 사직과 창원을 도는 원정 6연전에 들어간다. 이번 시리즈는 4위 탈환과 중위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승부처다. 하지만 일정은 만만치 않다. 6경기 모두 적지에서 열린다. 다음 주 삼성·두산전까지 포함하면, 무려 '원정 12연전'이다. 체력과 집중력, 전력 운용 전반이 시험받는 레이스다. 이 구간 성적에 따라, 남은 시즌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출발점은 5일부터 열리는 롯데와의 주중 3연전. 롯데는 팀 타율 0.277로 리그 1위, 득점권 타율도 1위다.

올러 선발진 가세, 사실상 '완전체' 구축 시너지 효과 기대
초점전 중위권 순위다툼, 원정 6연전 흐름이 도약 분수령
헐거워진 불펜 '닭고 조이고' 이적생 한재승·김시훈 든든

레이스와 고승민을 중심으로 한 중심타선은 응집력과 장타력을 겸비했다. 이런 전력을 상대로 워닝시리즈 이상의 결과가 필요하다. KIA는 시즌 상대 전적 6승 6패로 팽팽하지만, 사직에선 2승 4패로 밀렸다. 선발진의 버티는 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주말엔 공동 6위 NC와 맞붙는다. KIA와는 불과 0.5경기 차. 전반기 팀 타율 8위였던 NC는 후반기 들어 상위권까지 끌어올렸다. 장타율·OPS도 비슷한 수준이고, 리그 도루 1위의 기동력까지 갖췄다. 하지만 마운드는 약점이다. 팀 평균자책점은 4.61로 리그 9위. 득점권 실점이 많고, 야수진 실책도 리그 2위로 수비 불안이 크다. KIA는 초반부터 NC 마운드를 공략해 분위기를 주도해야 한다. 수비에선 배터리 간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다. 시즌 상대 전적은 5승 3패로 앞선다. 만약 롯데·NC전에서 4승 이상을 거둔다면, 상위권 도약의 불씨가 살아난다. 반대로 연패에 빠질 경우, 하위권 추락도 배제할 수 없다. 다행히 전력은 회복세다. 간판타자 김도영이 약 두 달 만에 복귀해 실

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유의 장타력과 클러치 능력으로 팀 전반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NC에서 이적한 한재승·김시훈도 불펜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불펜이 탄탄해지며 마운드 운용도 유연해졌다. 지난주엔 7연패를 끊고, 후반기 첫 연승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길었던 하락세의 흐름을 뒤집는 반등 계기를 만든 셈이다. 선발 올러도 부상에서 회복해 로테이션에 합류한다. 전력은 사실상 '완전체'다. 이제는 결과로 증명할 차례다. 이번 6연전이 그 시험대다. /주홍철 기자

프로야구 팀별 순위 (4일 기준)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한화	59	38	3	0.608	0
2	LG	61	40	2	0.604	0
3	롯데	57	44	3	0.564	4
4	SSG	50	47	4	0.515	9
5	KIA	48	47	4	0.505	10
6	kt	50	50	4	0.500	10.5
6	NC	46	46	6	0.500	10.5
8	삼성	48	52	1	0.480	12.5
9	두산	42	55	5	0.433	17
10	키움	29	71	4	0.290	31.5



김도영 (KIA 타이거즈 제공)

굿바이 토트넘!...굿바이 손흥민!

캡틴 완장 차고 삼삼별 65분 고별전...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아서 이런 사랑을..."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아서 이런 선수로 성장했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로 자리매김했을까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과 작별하는 손흥민이 한국 팬 앞에서 마지막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마친 뒤 벅차오른 감정을 이렇게 전했다. 손흥민은 지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2경기를 마치고 "많은 분이 고생했다고 말씀해주시는 데 대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며 "아직 축구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더 즐거운 모습, 더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선발로 출전해 약 65분을 뛴 손흥민은 교체 사인이 나오자 그라운드 위의 토트넘 동료들, 뉴캐슬 선수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벤치에 앉은 손흥민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흘렸고, 경기 뒤에 동료들의 행거를 받은 뒤엔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평평 울기도 했다. 손흥민은 "여러 감정이 북받쳤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정말 안 울 줄 알았다"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보낸 팀을 이렇게 떠나보내려고 하니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선수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다 보니 감정이 올라와서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경기를 했고, 팬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이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경기 후 동료 선수들로부터 행거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들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도 팀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 선수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더 행복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우미건설, 지역 장애인체육 선수 8명 채용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우미건설과 함께 지역 장애인체육 선수 취업 지원에 나섰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일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김현성 사무처장,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 안항범 호남지사장, 송춘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신규 입사한 8개 종목 8명의 장애인체육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미건설 소속 장애인체육 선수 입사식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우미건설 장애인스포츠선수 채용은 광주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체육 선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우미건설의 '장애인 취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맞물려 이뤄졌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월 공개채용을 진행, 서류 및 면접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8인을 선발했다. 채용된 선수들은 종목별 지정 훈련장에서 훈련 및 대회 참가 활동을 수행하며 광주시장애

인체육회는 선수들의 근태 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올해 1월 한국전력공사와 30명의 장애인체육 선수 일자리를 만든데 이어, 이번 우미건설 8명과 광주테크노파크 1명을 추가해 총 8개 기관 88명의 장애인체육 선수 일자리를 운영하게 됐다.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선수들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또한 우미건설은 상생의 실천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으로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미건설과 뜻을 함께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선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광주시 고용공단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김아림, 메이저 AIG 오픈 공동 4위

우승은 특급 신인 야마시타

김아림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AIG 여자오픈(총상금 970만달러)에서 공동 4위에 올랐다. 김아림은 4일 영국 웨일스 미드글러모건의 로열 포스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6개를 묶어 1오버파 73타를 쳤다. 함께 7언더파 28타를 적어낸 김아림은 기대했던 역전 우승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메이저

대회 톱10 입상의 성과를 올렸다. US오픈에서 공동 28위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지만, 세브런 챔피언십 공동 40위, KPMG 여자 PGA 챔피언십과 에비앙 챔피언십 컷 탈락 등 메이저대회에서 유난히 애를 먹었던 김아림은 올해 메이저대회 최고 성적을 남겼다. '슈퍼루키'로 주목받던 신인 야마시타는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함께 11언더파 27타로 우승했다. 김세영과 김효주가 나란히 공동 13위(2언더파 28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이민지, 올해 LPGA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수상

2022년 이어 2번째 수상

호주 교포 이민지가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린 선수에게 주는 롤렉스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를 받게 됐다. LPGA 투어는 4일 이민지가 롤렉스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포인트 78점으로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2014년에 시작된 롤렉스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는 5개 메이저대회 성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1위 선수에게 시상한다. 포인트는 톱10 이내에 들어야 받을 수 있다. 이민지는 이날 끝난 AIG 여자 오픈에서는 공동 13위에 그쳐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했지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3위 등 두 차례 메이저대회에서 받은 포인트만으로도 경쟁 선수를 따돌렸다. /연합뉴스

세브런 챔피언십 우승자 사이고 마오(일본)가 4점 차이로 2위로 밀렸고, AIG 여자 오픈에서 우승한 야마시타 미유(일본)가 70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민지가 롤렉스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를 받은 것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이민지는 US여자오픈 우승에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준우승, AIG 여자 오픈 공동 4위 등 3개 메이저대회에서 포인트를 땀다. 롤렉스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를 2번 이상 수상하는 선수는 이민지가 처음이다. /연합뉴스